

국립백두대간수목원 1호 신품종 털부처꽃 '백두분홍' 품종보호권 획득

-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활용 신품종 개발 -

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은 산림신품종 털부처꽃 '백두분홍'이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.

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2022년 6월 털부처꽃 '백두분홍'(*Lythrum salicaria* 'Baekdubunhong')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통해 신품종으로 출원했다.

'백두분홍'은 자생원종인 털부처꽃에 비해 꽃이 연한 분홍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. 특이형질을 지닌 털부처꽃은 지난 2019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원 내 암석원에서 처음 발견된 바 있다.

이에 따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조 직배양과 삼목을 통한 증식으로 동일한 형질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후 '백 두분홍'의 명칭으로 품종 출원했으며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2년간의 재배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가 최종 결정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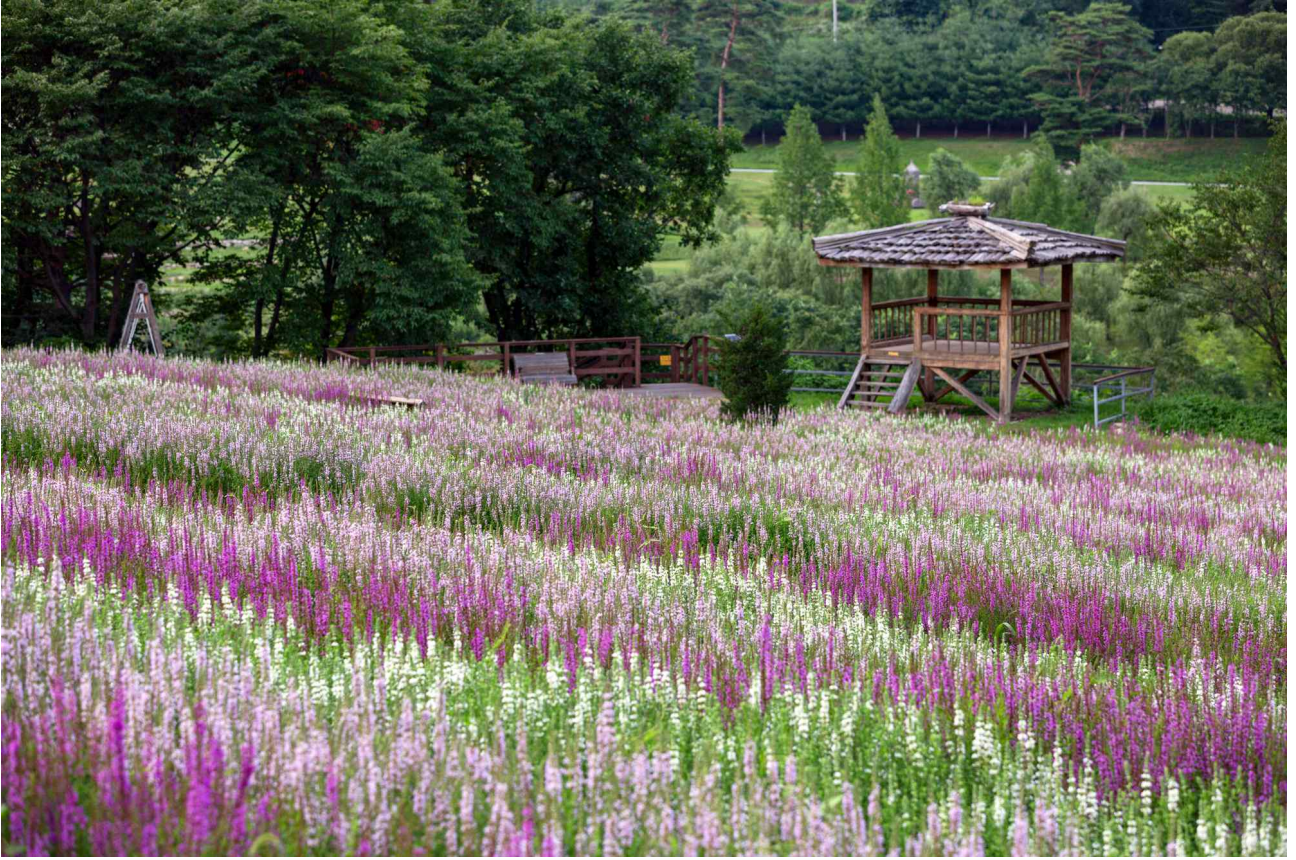
'백두분홍'은 식물 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의 명칭, 신규성, 구별성, 균 일성, 안정성 5가지 항목을 모두 인정받았으며 2026년부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가든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.

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“털부처꽃 '백두분홍'의 품종보호권 획 득은 자생식물을 활용한 국내육성 품종개발로 글로벌 식물산업에서의 경 쟁력 확보와 자생식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 발 나선 결과” 라며 “새로 운 자생식물 품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”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국립백두대간수목원	책임자	실 장	장창석 (054-679-2772)
	산림생물자원본부 산림생태복원실	담당자	주 임	정다슬 (054-679-0685)



1.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출원한 털부처꽃 ‘백두분홍’



2.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야생화언덕에서 볼 수 있는 털부처꽃 ‘백두분홍’